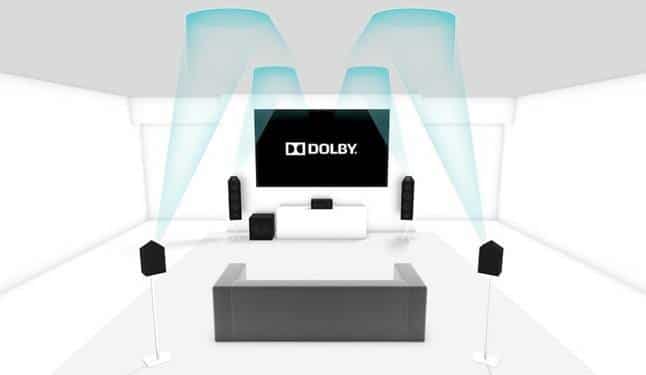
유사 서비스 분석 – <애플뮤직>

* 애플뮤직의 기능

1. Dolby Atmos 기술이 적용된 공간 음향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생생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또한, 선명한 음질을 선사하는 무손실 오디오로 감상할 수 있다.

+ Dolby Atmos는 재생 중인 사운드의 공간감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Dolby Atmos는 공간 및 객체 기반 오디오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사운드가 사방에서 둘러싸고 천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 느낌을 준다. Pixar 영화 Merida Waleczna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 AirPods(3세대), AirPods Pro, AirPods Max에서 동적 머리 추적 기술로 구현되는 더욱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2. 인공지능 Siri에게 얘기하면 원하는 아티스트의 곡을 틀어주는 건 물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아니면 장르에 따라 꼭 맞는 곡을 골라주기도 한다.
3. ‘가사 보기’와 함께 수천만 곡의 노래에 맞춰 나오는 가사를 보며 따라 부를 수 있고, 원하는 구절을 탭해 바로 이동할 수도 있고, 맘에 드는 가사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별도로 끄지 않는 이상, 가사를 항상 보여준다.
4. 운전 중에도 CarPlay를 통해 Apple Music을 즐길 수 있다.
5. ‘지금 듣기’는 이미 즐겨 듣는 곡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최애곡 후보들을 간편하게 발견할 수 있다.
6. 전문 에디터들의 엄선된 맞춤 플레이리스트를 접할 수 있다.
7.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신곡부터 불멸의 고전까지 다채롭게 접할 수 있다.
8. Apple Watch에서 음악을 곧바로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할 수 있다.

* 애플뮤직의 추천 기능

1. 사용자가 가장 자주 듣는 음악들을 모은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음악을 분류해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내가 듣는 음악 중에서 신나는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 차분한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 등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 좋아요 또는 비슷한 항목 제안하지 않기를 하면 이후 추천 음악에 반영
* 사용자가 한 음원을 선택해서 들으면 사용자의 평소 패턴 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감성을 파악해 다른 음원을 추천하는 큐레이팅 서비스.

1. 알고리즘에 기반해 사용자가 좋아하는 장르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한다. 또한 스테이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노래와 비슷한 분위기와 장르의 노래를 계속 들을 수 있다.

* ‘지금 듣기’를 처음 탭하면 Apple Music은 사용자의 취향에 관해 묻는데 Apple Music은 이 선호도 정보를 사용하여 음악을 추천한다.

1. 아티스트들이 영향을 주고받은 음악들로 이루어진 플레이리스트를 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준 음악을 살펴볼 수 있다.

* 어떤 아티스트를 즐겨찾는 아티스트로 표시하면 For You의 ‘즐겨찾는 아티스트’ 아래에 나타나고 해당 아티스트의 음악 추천 횟수가 늘어난다

https://www.apple.com/kr/apple-music/

<https://gogosmart.pro/ko/texnika/televizor/texnology/texnologiya-dolby-atmos.html>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007

https://support.apple.com/ko-kr/guide/iphone/iph2b1748696/ios